

2017. 01. 23. ~ 2017. 01. 29.

주간

121

VOL

전남농업정보

기상전망

농산물 주간 동향 (관측정보)

- 품목별 동향 및 전망
- 마늘 산지동향, 가격 및 수급전망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전남도, 중국에 온·오프라인 병행물 2곳 운영키로
- 곡성수출딸기연구회 해외 수출 다변화 앞장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생활 속의 작은 난 화분, 실천해보세요
- 블루베리, 갈색날개매미충 알 낳은 가지 처리는

정책동향

- 대만·일본 수출농산물 안전성 확보 나선다
- 전남도, 1읍·면 1푸른들 시범지구 추진

사업신청 및 홍보

- 전남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신청하세요
- 갈색양송이 온라인 평가하고 버섯 선물 받으세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요 약

☼ 주간 기상전망 5

- ▶ 기압골의 영향으로 2월 5일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5~0도, 최고기온 : 5~9도)과 비슷하겠음
- ▶ 강수량은 평년(0~2mm)과 비슷하겠음

☼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8

- ▶ 품목별 동향 및 전망 (17.01.24.~17.01.30.)
- ▶ 마늘 산지동향, 가격 및 수급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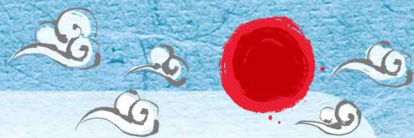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0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12

- ▶ 전남도, 설 귀경·귀성객에게 전남쌀 홍보
- ▶ 여수시, 벼 재배 농업인 매월 월급 받는다
- ▶ 순천시, 설 연휴 꼼꼼한 AI 방역대책으로 청정 유지
- ▶ 곡성군, '백세미'가 고향의 정을 함께 합니다
- ▶ 화순군, '17년도 명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 교육 스타트
- ▶ 해남군, 벼 경영안정 대책비 56억 7천만원 지급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8

- ▶ 전남도, 중국에 온·오프라인 병행몰 2곳 운영키로
- ▶ 곡성수출딸기연구회 해외 수출 다변화 앞장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21

- ▶ 관음죽의 수익성 및 전문농 경영모형
- ▶ 반촉성재배 미니단호박 고품질 출하를 위한 수확적기 및 후숙조건
- ▶ 전남지역 벼 대체 사료작물 연계 조사료 최대생산 작부체계
- ▶ 소금을 활용한 농가형 체험 프로그램
- ▶ 홍삼농축액 원산지 가려낸다
- ▶ 생활 속의 작은 난 화분, 실천해보세요
- ▶ 블루베리, 갈색날개매미충 알 낳은 가지 처리는

❁ 정책 동향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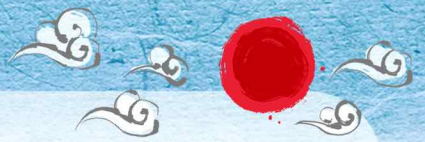
- ▶ 대만·일본 수출농산물 안전성 확보 나선다
- ▶ 전남도, 1읍·면 1푸른들 시범지구 추진
- ▶ 영세고령농 생산 농식품 판매 지원한다
- ▶ 농업용 면세유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 ▶ 홍콩, 조류독감 이유로 한국산 가금류 일부 수입 중단
- ▶ 브라질, 건강·웰빙식품 트렌드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17. 1. 27.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시카고 선물 거래소 밀 선물 가격은 기대보다 높은 수출 판매 실적으로 전일 대비 상승 마감하였고, 옥수수과 대두의 하락세에 동조하지 않으며 밀 선물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음.
 - 옥수수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남미 기상 여건 개선과 미국의 교역 관계에 대한 불안감으로 전일 대비 하락 마감하였음.
 - 대두 : 시카고 선물 거래소 대두 선물 가격은 남미의 기상 개선 및 미국의 교역 관계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전일 대비 하락 마감하였음.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日)

- ▶ 전남농기원, 수출용 양란(심비디움) 설 선물 직거래 행사 성료
- ▶ 전남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신청하세요
- ▶ 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
- ▶ 갈색양송이 온라인 평가하고 버섯 선물 받으세요
- ▶ 봄의 시작, 24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 입춘 (立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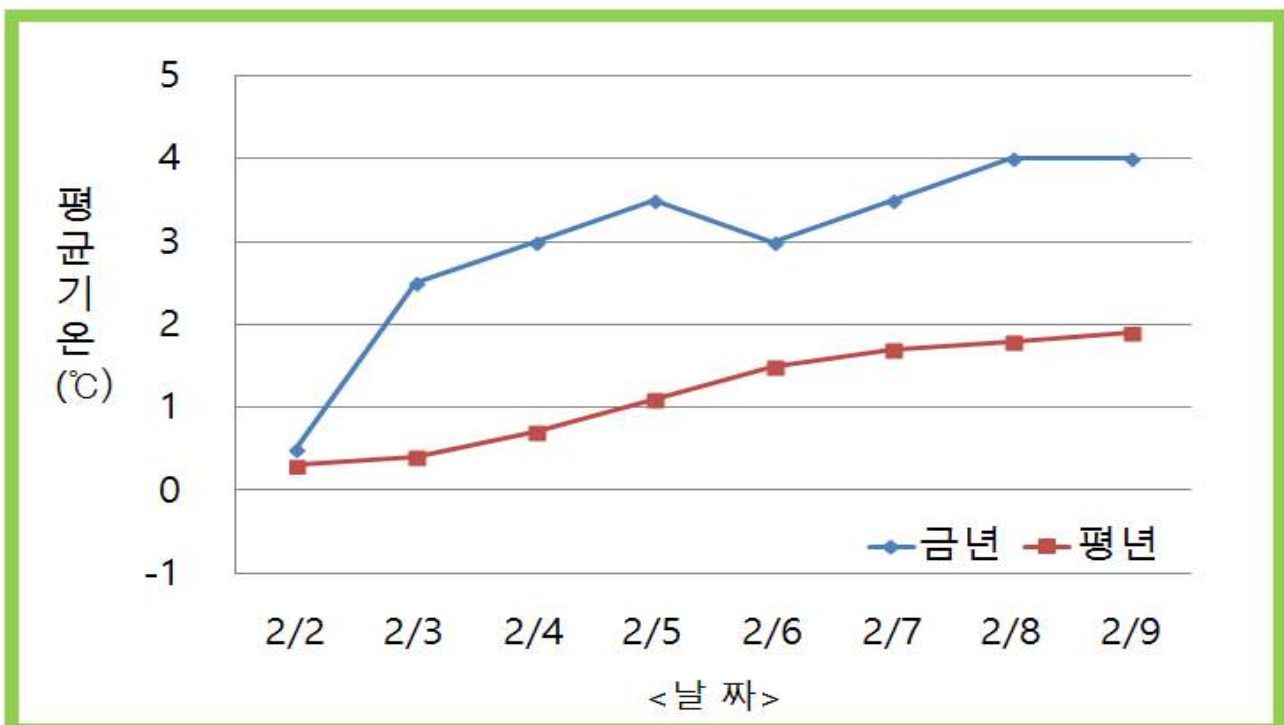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3.0	1.2	1.8	7.6	6.3	1.3	-1.6	-3.0	1.4	0.9
2. 02.(목)	0.5	0.3	0.2	6.0	5.1	0.9	-5.0	-3.7	-1.3	0.8
2. 03.(금)	2.5	0.4	2.1	7.0	5.4	1.6	-2.0	-3.7	1.7	0.7
2. 04.(토)	3.0	0.7	2.3	8.0	5.8	2.2	-2.0	-3.5	1.5	0.6
2. 05.(일)	3.5	1.1	2.4	7.0	6.4	0.6	0.0	-3.2	3.2	0.4
2. 06.(월)	3.0	1.5	1.5	8.0	6.8	1.2	-2.0	-2.8	0.8	0.7
2. 07.(화)	3.5	1.7	1.8	8.0	7.0	1.0	-1.0	-2.5	1.5	1.0
2. 08.(수)	4.0	1.8	2.2	9.0	7.0	2.0	-1.0	-2.3	1.3	1.2
2. 09.(목)	4.0	1.9	2.1	8.0	7.0	1.0	0.0	-2.1	2.1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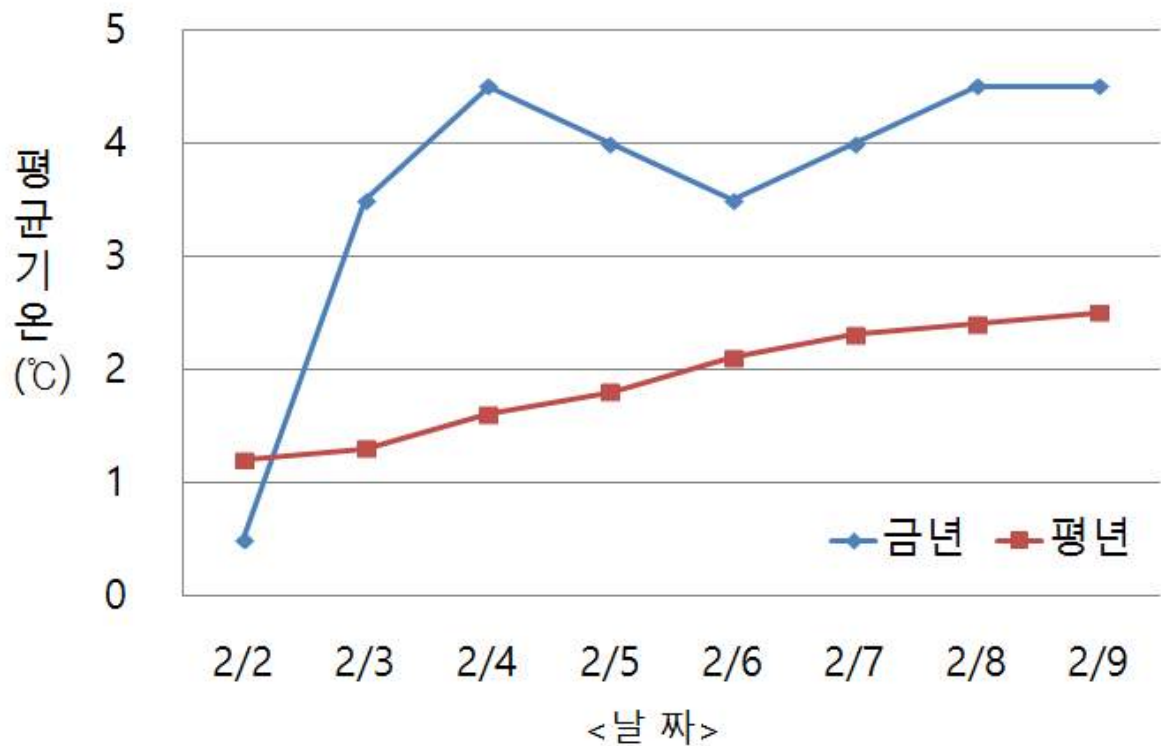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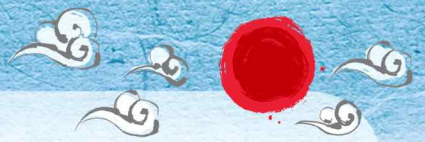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3.6	1.9	1.7	7.5	6.7	0.8	-0.3	-1.5	1.3	0.8
2. 02.(목)	0.5	1.2	-0.7	5.0	5.7	-0.7	-4.0	-2.2	-1.8	0.6
2. 03.(금)	3.5	1.3	2.2	7.0	6.1	0.9	0.0	-2.1	2.1	0.7
2. 04.(토)	4.5	1.6	2.9	8.0	6.4	1.6	1.0	-2.0	3.0	0.6
2. 05.(일)	4.0	1.8	2.2	7.0	6.7	0.3	1.0	-1.7	2.7	0.5
2. 06.(월)	3.5	2.1	1.4	8.0	7.1	0.9	-1.0	-1.4	0.4	0.7
2. 07.(화)	4.0	2.3	1.7	8.0	7.3	0.7	0.0	-1.1	1.1	0.9
2. 08.(수)	4.5	2.4	2.1	9.0	7.2	1.8	0.0	-0.9	0.9	1.1
2. 09.(목)	4.5	2.5	2.0	8.0	7.2	0.8	1.0	-0.9	1.9	1.4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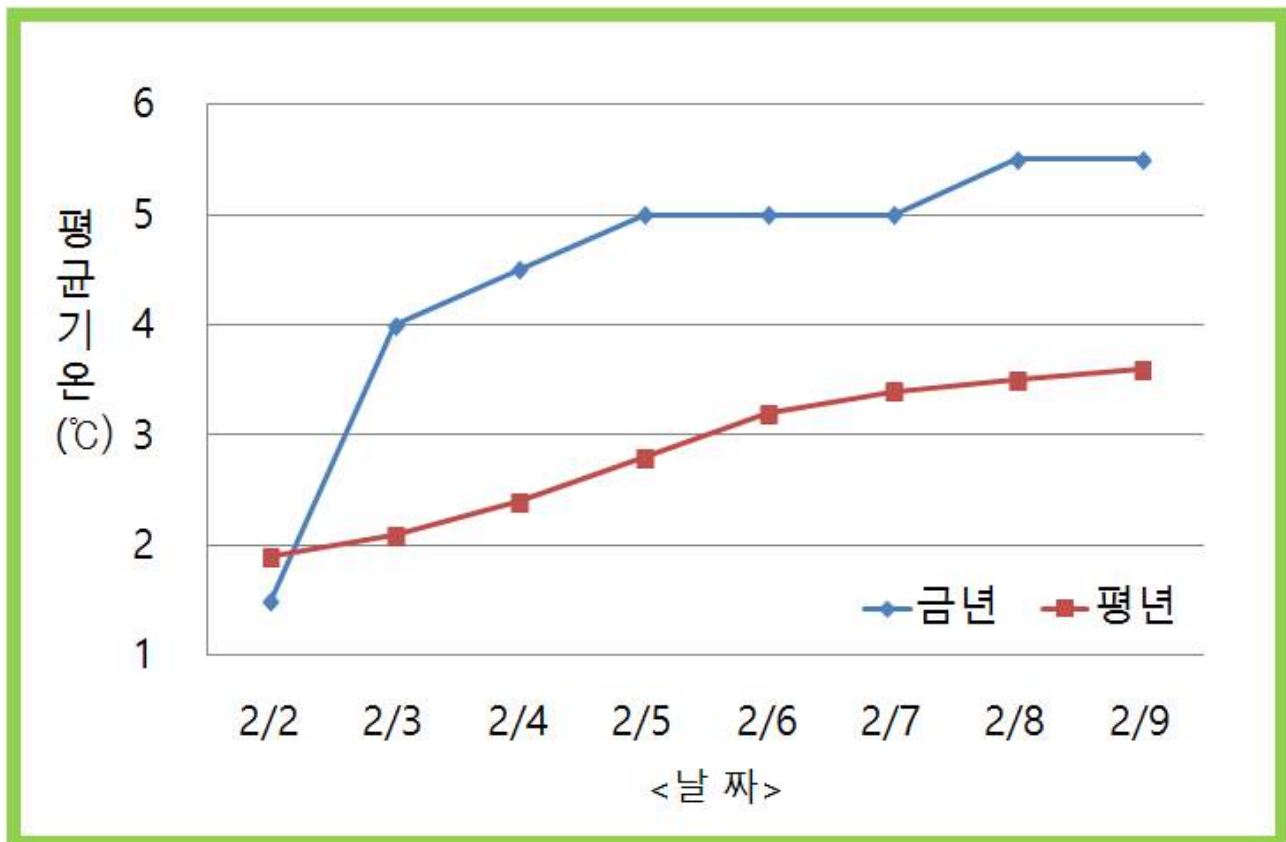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4.5	2.9	1.6	8.3	7.1	1.1	0.8	-0.5	1.3	0.6
2. 02.(목)	1.5	1.9	-0.4	6.0	6.1	-0.1	-3.0	-1.4	-1.6	0.6
2. 03.(금)	4.0	2.1	1.9	8.0	6.4	1.6	0.0	-1.3	1.3	0.4
2. 04.(토)	4.5	2.4	2.1	8.0	6.7	1.3	1.0	-1.0	2.0	0.3
2. 05.(일)	5.0	2.8	2.2	7.0	7.1	-0.1	3.0	-0.6	3.6	0.2
2. 06.(월)	5.0	3.2	1.8	9.0	7.4	1.6	1.0	-0.2	1.2	0.5
2. 07.(화)	5.0	3.4	1.6	9.0	7.7	1.3	1.0	0.1	0.9	0.6
2. 08.(수)	5.5	3.5	2.0	10.0	7.7	2.3	1.0	0.2	0.8	0.9
2. 09.(목)	5.5	3.6	1.9	9.0	7.9	1.1	2.0	0.2	1.8	1.2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품목별 동향 및 전망 [17.01.24.~17.01.30.]

□ 배추 : 수급조절 매뉴얼상 “상승주의” 단계 전망

- 동향 : 전주대비 반입량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전주(9,058)대비 보합세 (9,089원/10kg)
- 전망 : 설 전까지 출하가 원활하며 약보합세 전망

□ 무 : 수급조절 매뉴얼상 “상승심각” 단계 전망

- 동향 : 겨울무 출하량 증가했으나 설 성수기 수요에 따라 전주(17,418원)대비 보합세(17,940원/18kg)
- 전망 : 설 성수기 수요 증가로 전주대비 강보합세 전망

□ 건고추 : 수급조절 매뉴얼상 “하락경계” 단계 전망

- 동향 : 재고 충분하여 평년대비 낮은 가격(5,700원/600g)수준 지속
- 전망 : 특별한 수급변동 요인 없어 보합세 전망

□ 간마늘 : 수급조절 매뉴얼상 “상승경계~심각” 단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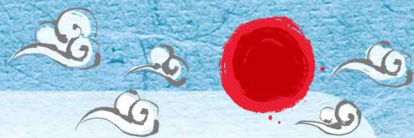
- 동향 : 명절 수요증가 등으로 전주(7,310원)대비 강보합세(7,350원/kg)
- 전망 : 설 명절 수요 증가, 재고부족으로 강보합세 전망

□ 양파 : 수급조절 매뉴얼상 “상승주의” 단계 전망

- 동향 : 저장업체의 시장시세에 따른 출하조절로 산지 출하작업량을 줄이면서 가격은 전주(1,196원)대비 보합세(1,234원/kg)

- 전망 : 시세에 따른 출하조절이 지속되면서 보합세 전망





마늘 산지동향, 가격 및 수급전망

- '17년산 추정 생산량은 전년대비 5% 내외 증가한 290천톤 전망
 -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7% 증가되나, 평년대비 11% 감소한 22,200ha 수준 추정
 - 생산량 290천톤으로 전년대비 증가하나, 평년대비 11% 수준 감소 전망
 - 비주산지 재배면적 증가, 생산량은 평년수준 단위(1,305kg/10a) 고려

□ 산지동향

- 산지거래가격은 전월대비 보합세 수준이며 통마늘 산지거래 감소
- 17년산 초기 작황은 영남지역 파종지연에 따라 초기 엽수가 감소하였으나 12월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평년수준의 작황 수준 유지

□ 가격 및 수급전망

- 정부비축물량 방출로 1월 상순 보합세를 보였으나 명절수요 증가로 상승세 전환
- 마늘 가격

(단위: 원/kg)

구 분	2017년 1월		
	첫째주	둘째주	셋째주
가격	7,300	7,310	7,350

- 설 명절 수요 증가와 평년대비 부족한 재고량으로 현 시세보다 소폭 전망

□ 수급대책 : 단경기 수급 불안 대비 정부비축물량 방출 중

- 정부비축물량 주당 900톤 수준 방출
 - 16년산 정부비축분 15.9천톤 중 1.1천톤 수준 방출('16.11.~)
 - 2~3월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방출물량 탄력적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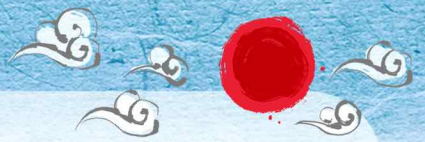
*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7. 01. 31.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1/31)	1주일전 (01/2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작물	쌀(일반계)	20kg	31,800	31,800	32,400	36,200	42,267	↓ 12.2	↓ 24.8
	콩(백태)	35kg	177,800	177,800	179,900	149,000	160,267	↑ 19.3	↑ 10.9
	고구마(밤)	10kg	25,400	25,600	25,100	27,600	25,297	↓ 8.0	↑ 0.4
	감자(수미)	20kg	34,200	33,200	32,700	31,000	27,873	↑ 10.3	↑ 22.7
채 소 류	배추(월동)	1kg	1,080	1,080	975	728	520	↑ 48.4	↑ 107.7
	양배추	10kg	13,400	13,200	14,250	7,550	6,263	↑ 77.5	↑ 114.0
	오이(다다기계통)	10kg	41,667	40,000	44,833	42,833	49,657	↓ 2.7	↓ 16.1
	애호박	8kg	26,400	32,000	26,600	39,550	34,110	↓ 33.2	↓ 22.6
	토마토	10kg	33,600	32,800	39,350	32,650	33,440	↑ 2.9	↑ 0.5
	당근	20kg	67,200	70,000	76,400	25,100	22,713	↑ 167.7	↑ 195.9
	건고추(화건)	60kg	570,000	570,000	580,000	780,000	836,667	↓ 26.9	↓ 31.9
	풋고추	10kg	74,200	89,400	62,650	72,650	82,877	↑ 2.1	↓ 10.5
	마늘(깐마늘)	20kg	147,000	147,000	146,600	156,500	111,667	↓ 6.1	↑ 31.6
	양파	20kg	26,000	26,000	21,250	33,450	20,003	↓ 22.3	↑ 30.0
	대파	1kg	2,500	2,540	2,595	3,320	1,582	↓ 24.7	↑ 58.0
	파프리카	5kg	32,600	33,200	26,450	53,250	40,983	↓ 38.8	↓ 20.5
	멜론	8kg	28,800	27,000	26,500	27,000	41,659	↑ 6.7	↓ 30.9
	방울토마토	5kg	20,200	18,200	30,300	24,000	22,257	↓ 15.8	↓ 9.2
	수박	1개	13,800	13,800	15,650	21,950	17,453	↓ 37.1	↓ 20.9
과 일 류	사과(후지)	10kg	41,400	42,200	39,000	37,550	47,841	↑ 10.3	↓ 13.5
	배(신고)	15kg	39,400	40,400	38,800	47,250	46,950	↓ 16.6	↓ 16.1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1/31)	1주일전 (01/2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23,000	523,000	523,000	529,000	547,333	↓ 1.1	↓ 4.4
	느타리버섯	2kg	16,200	16,400	13,550	14,700	13,563	↑ 10.2	↑ 19.4
	새송이버섯	2kg	10,800	11,200	8,350	9,950	9,717	↑ 8.5	↑ 11.1
축 산 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640	7,691	7,799	8,096	6,686	↓ 5.6	↑ 14.3
	돼지고기(삼겹살)	100g	1,967	1,873	1,838	1,871	1,700	↑ 5.1	↑ 15.7
	닭고기	1kg	4,890	4,981	5,038	5,212	5,311	↓ 6.2	↓ 7.9
	계란(특란)	30개	9,030	9,017	8,273	5,429	5,657	↑ 66.3	↑ 59.6
	우유	1리터	2,529	2,529	2,528	2,548	2,483	↓ 0.7	↑ 1.9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7. 01. 30.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284 천원	5,032 천원	5,775 천원	↓ 5	↓ 8.5
	거세	5,592 "	5,408 "	6,908 "	↓ 3.4	↓ 19
송아지 (6~7월)	암	2,552 "	2,543 "	2,624 "	↓ 0.3	↓ 2.7
	수	3,127 "	3,142 "	3,232 "	↓ 0.4	↓ 3.2
육우(600Kg)		2,332 "	2,560 "	3,695 "	↓ 8.9	↓ 36.8
젖소수송아지(7일령)		122 "	126 "	196 "	↓ 3.1	↓ 37.7
돼지(110kg)		344 "	388 "	344 "	↑ 11.3	- -
육계(원/kg)		1,282 원	1,252 원	1,499 원	↓ 2.3	↓ 14.4
계란(원/특란10개)		2,166 "	2,217 "	995 "	↑ 2.3	↑ 117
오리(원/kg)		2,330 "	2,400 "	1,660 "	↓ 3	↑ 40.3

※ 한우(거세우) 생산비 : 6,453천원/마리 (△861) * (5,658 - 2,332 + 3,127 = 6,453)

(¹⁵년 생산비) (¹⁵년 송아지 가격) (현재 수 송아지 가격)

- 육우 3,798, 돼지 297/110kg, 육계 1,278원/kg, 오리 1,944원/kg, 계란 1,051원/10개, 우유 763원/l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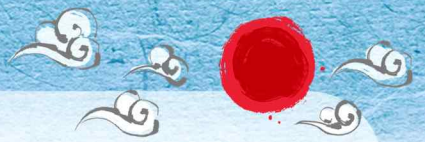
4.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전남도, 설 귀경·귀성객에게 전남쌀 홍보

- 26~30일 기차역, 버스터미널서 시·군, 농협 등과 합동 판촉활동 -
- 전라남도는 설을 맞아 귀경·귀성객을 대상으로 26일부터 30일까지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에서 대대적인 전남쌀 홍보 판촉에 나섰다.
- 전라남도는 시·군, 농협과 합동으로 26일 오후 광주 송정역에서 귀경·귀성객에게 시식용 쌀 1천여개와 홍보전단을 배포하는 등 향우들의 고향쌀 구매를 적극 유도하였다.
- 이번 홍보활동에는 2016년 전남 10대 브랜드 쌀로 선정된 10개 경영체가 참여해 고향의 따뜻한 정을 전하고, 전남쌀이 ‘대한민국 명품쌀 선정’ 평가 원년에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최고 품질임을 집중 홍보했다.
- 2016년 전남 10대 브랜드쌀은 나주 동강농협 ‘드림생미’, 담양 금성농협 ‘대숲 맑은 담양쌀’, 고흥 홍양농협 ‘수호천사 건강미’, 보성군농협쌀조합법인 ‘녹차미인 보성쌀’, 장흥 정남진농협 ‘아르미쌀’, 강진군농협쌀조합법인 ‘프리미엄 호평’, 해남 옥천농협 ‘한눈에 반한 쌀’, 영암군농협쌀조합법인 ‘달마지쌀 골드’, 무안군농협쌀조합법인 ‘황토랑쌀’, 함평군농협쌀조합법인 ‘나비쌀’, 영광군농협쌀조합법인 ‘사계절이 사는 집’이다.
- 각 시·군에서도 농협 등 생산자단체와 합동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에서 지역 대표 브랜드 쌀을 홍보했다.
- 이춘봉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전남쌀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앞으로 국내시장 뿐 아니라 해외시장 등 다양한 유통망을 적극 발굴해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여수시, 벼 재배 농업인 매월 월급 받는다

- 23일 3개 지역농협과 협약... 매월 30~100만원 지급 -

-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 시에 따르면 23일 시청에서 주철현 여수시장과, 배상현 여수농협 조합장, 강진형 울촌농협조합장, 이기원 여천농협상임이사, 강도용 농업경영인여수시연합회장, 신정옥 한국쌀전업농여수시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농업인 월급제는 주요 소득이 수확철인 가을철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대출 등으로 농업인들의 농가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대상은 벼 재배농가 중 농협 자체수매 70가마 이상 약정 체결농가 및 약정 예정농가다.
- 희망농가는 다음달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이후 지역농협과 출하 약정을 체결하면 수확대금의 일부를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까지 월급처럼 지급받게 된다.
- 시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벼 재배농가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배분돼 농가의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시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해 지난해부터 농업인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했고, 이미 시행중인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 하는 등 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 출처 : 여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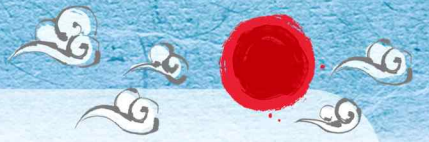
■ 순천시, 설 연휴 꼼꼼한 AI 방역대책으로 청정 유지

- 귀성객에 대해 축산농장 및 철새도래지 방문자제 당부 -

- 순천시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 등 대규모 인구이동으로 최근 진정 추세에 있는 AI가 추가 확산되는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여 설 연휴기간 촘촘한 방역추진으로 청정지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 먼저, 설 명절 전후 가금류 농가에 대한 집중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단 5개반을 동원해 소독을 지원하고, 전업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은 전담공무원 현장 확인을 통해 소독 및 예찰을 실시하고 외부차량의 농장출입을 전면 통제할 방침이다. 특히, 방역취약 대상인 소규모 토종닭 농가에 대해서는 설 이전에 자가 도태를 적극 유도해 AI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 아울러,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축사시설이나 철새도래지 등을 방문하지 않도록 고속도로 주요 나들목과 기차역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양축농가 간 모임 및 회합도 자제토록 했으며 택배차량의 농장출입도 엄격히 관리한다.
- 또한, AI 방역대책본부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축산차량 및 외부 유입차량 전면 소독을 위해 운영 중인 거점 및 이동통제 소독초소 6개소도 24시간 3교대로 운영한다. 연휴기간 한파에 따른 소독 장비 동파방지를 위해 열선처리하고 도로결빙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설제도 초소별로 사전에 비축하는 등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 출처 : 순천시





■ 곡성군, '백세미'가 고향의 정을 함께 합니다

- 누룽지향 가득한 설날 우리밥상 -

- 곡성군(군수 유근기)과 석곡농협(농협장 김재경)이 친환경단지에서 재배한 신품종 골든퀸3호 '백세미'(유기농쌀)가 설을 맞아 선물용 등으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개발한 선물세트는 주는 사람의 정을 듬뿍 담아 줄 수 있는 설 선물로 안성맞춤이며, '백세미'는 어른들에게는 누룽지향, 어린이들에게는 팝콘향으로 입맛을 사로잡아 한번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을 잊을 수 없어 다시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백세미'는 기존 쌀에 비해 고가미로 다양한 소비자층 확보를 위해 석곡농협에서는 직거래,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적극 판매하고 있다.
- 한승준 석곡농협 전무는 “백세미는 어느 쌀보다 밥맛은 보장할 수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먹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판매전략으로 생각하고, 농협 양재동 하나로클럽과 농협 양곡납품 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재경 석곡농협장은 “지난주부터 광주 수완지구 농협하나로클럽에서 판매를 시작하여 주말에 시식회를 병행했는데 센터 전체에 누룽지향이 가득하여 소비자와 직원들에게 호응이 매우 좋았으며, 한번 백세미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부모님께 드린다고 재구매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김영중 군 농정과장은 “건강한 유기농쌀 백세미로 고향의 정을 듬뿍 느낄 수 있는 설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군에서는 안전한 친환경농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곡성군

■ 화순군, '17년도 명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 교육 스타트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2017년도 명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 교육을 1. 10.부터 11. 23.까지 39개 과정 2,1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은 한 해 농사를 계획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 13과정을 시작으로 농업인전문기술교육 11, 농업기계교육 5, 농업인 정보화 교육 10과정을 포함해 총 39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의 신청을 돕기 위해 리플릿을 2,000부를 제작하여 배부되고 있다.
 - 리플릿에는 각 과정의 교육일정과 장소 등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필요하신 분은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 농업인 상담소를 방문하면 받아볼 수 있으며, 교육 신청은 ☎ 379-5453 또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과정은 지난 연도에 수요조사를 통하여 농업인들이 필요한 교육을 선정하였으며 교육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수강을 받지 못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플릿 제작, 배부하고 있으니 많은 농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육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품질 재배기술과 농가 경영개선 등 다양한 영농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명품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밖에도 농업기술센터에는 전문과정인 농업인대학 3개 과정 105명, e-비즈니스 교육 20회 30명, 품목별·농업인연구회별 교육 등 다양한 과정이 마련되어 있으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 출처 : 화순군





■ 해남군, 벼 경영안정 대책비 56억 7천만원 지급

- 해남군은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감소와 쌀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설 명절을 앞두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56억 7,000만원을 지급했다.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쌀 소득보전직불금 지원 외에 도비 40, 군비 60% 매칭사업비로 ha당 51만원이 지급되며, 올해 관내 지급대상은 9,197농가, 1만 1,119ha이다.
- 대상은 해남군에 주소지를 두고 전라남도에서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한 농가로서 지급면적은 0.1ha 이상 최대 2ha까지이다.
- 군 관계자는 “쌀소비 감소와 가격 하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여건을 감안해 설 명절 전에 조기 지원하게 되었다”며 “경영안정 자금이 벼 재배농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출처 : 해남군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전남도, 중국에 온·오프라인 병행몰 2곳 운영키로

- 2월 20일까지 운영 희망업체 모집 -

- 전라남도는 중국 내륙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 판매장과 인터넷 입점으로 쇼핑이 가능한 온·오프라인 병행몰 2개소를 개설키로 하고 2월 20일까지 운영 희망업체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쇼핑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체험만 하고, 가격이 더 싼 온라인에서 같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행위다.
- 전라남도가 그동안 분리해 추진해오던 현지 판매장과 인터넷 쇼핑몰 구축사업을 일원화해 병행몰로 운영키로 한 것은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든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 환경 때문이다.
- 실제로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 거래액은 지난해 3조 4천억위안(623조 7천억원)을 넘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성장률도 2014년 50%에 육박했던 것이 2016년 26.1%로 감소해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 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 마케팅(O2O)인 병행몰의 거래액은 아직 인터넷 쇼핑몰 거래액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14년 3천 49억 위안에서 2015년 4천 600억위안(84조 2천 500억원)으로 51%의 성장률을 보였다.
- 이처럼 최근 중국에서는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병행몰이 인터넷 쇼핑몰을 대체할 판매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인지도 없는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해 운영하는 싱글채널 방식보다는 중국 현지에서 판매장을 운영하는 유통업체가 직접 타오바오, 티몰, 이하오디엔 등 중국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제품을 입점시키고, 쇼루밍 방식의 구매를 원하는 중국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간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병행몰 운영 신청 대상은 중국에 농·수산물 판매장을 보유한 유통업체로서 면적 20㎡ 이상 숭인숍 형태의 별도 매장 설치가 가능해야 한다.
 - 전라남도는 중국 내륙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경쟁이 심한 1선 도시나 동부 연안 지역을 제외한 2선 성도급 도시에 판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5점의 가산점을 줘 우선 선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선·2선·3선 도시의 구분은 도시의 중요도, 발달 정도에 따라 구분된다.
 - 또한 수출 증대를 위해 전남 식품 수입을 의무화하고, 수입량에 따라 사업비를 70% 범위에서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 선정일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은 “한한령(한류 금지령) 여파 등으로 중국 수출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라며 “중국의 고령화와 두자녀 정책에 대비한 다양한 맞춤형 시책으로 기업들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수출정보망(www.jexport.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061-286-2452)로 문의하면 된다.
- * 출처 : 전라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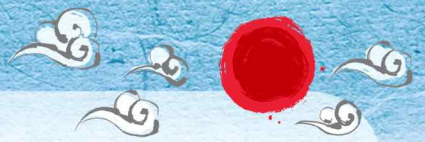
■ 곡성수출딸기연구회 해외 수출 다변화 앞장

- 신선딸기, 홍콩지역 첫 수출 성사 -

- 곡성수출딸기연구회(회장 김만겸)는 지난 17일 수입바이어가 요구한 품질기준 및 선별기준이 충족되어 1차 수출물량 464kg을 홍콩으로 첫 수출했다고 밝혔다.
- 곡성수출딸기연구회는 2015년부터 곡성지역에서 하이베드로 딸기를 생산하는 13농가가 모여 연구회를 조직하고, 공동선별 참여 및 생산농가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태국·싱가포르 지역에 꾸준히 수출하고 있으며, 이번 홍콩 수출로 해외시장을 다변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다.
- 이번 수출은 현지바이어와 수출협의 및 계약을 통해 곡성에서 최초로 매주 홍콩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으며, 최근 소속 농가들을 대상으로 베트남·대만 수출을 위해 식물재배지 검역 지정농가 등록을 마쳐 곡성 신선딸기의 해외 수출길이 앞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곡성수출딸기연구회는 꾸준한 품질관리를 위해 매주 자체적으로 간담회와 워크숍을 진행하여 품질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며,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딸기재배교육 및 체계적인 수확·관리 교육을 받고 있다.
- 특히 딸기수출사업과 연계하여 농촌진흥청 딸기수출연구사업단(단장 김승유)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에서 '수출딸기 신품종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 현재 곡성의 주 생산 품종인 '설향'에서 국내 육성품종과 유망 계통을 조기 선발하고, 우량묘 조기 공급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어 향후 과실이 단단하고 당도, 식미가 뛰어난 수출용 딸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곡성군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관음죽의 수익성 및 전문농 경영모형

□ 개발기술 내용

- 관음죽 3년 1기작의 10a당 수량은 3,090분이며, 조수입은 46,290천원, 경영비 34,767천원으로 소득은 11,522천원임
- 비목별 투입비용 분석결과, 10a당 생산비는 51,159천원이며, 분당 생산비는 16,556원임
- 조수입 20,000천원을 달성하기 위한 주업 전문농 경영규모는 13a이며, 유동자본은 13,525천원이 소요됨



【관음죽 정식포장】



【관음죽 출하전 화분】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지방자치단체 화훼산업 육성 재정지원 근거 자료 활용
- 틈새 대체 화훼작목 육성 교육 정보제공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영농손실보상, 화훼농가 경영개선 상담 기준 자료로 활용
- 경영불안 화훼 작목 재배농가의 작목전환 의사결정 정보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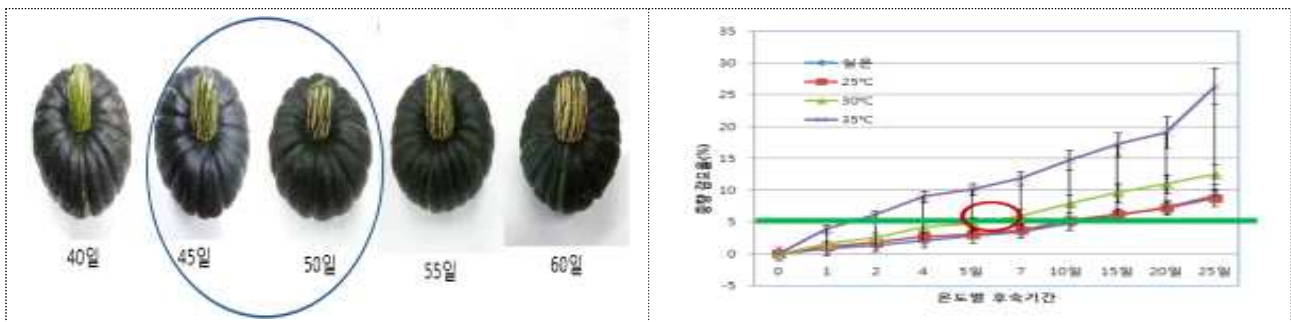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손장환

■ 반촉성재배 미니단호박 고품질 출하를 위한 수확시기 및 후숙조건

□ 개발기술 내용

○ 반촉성재배 미니단호박 적정 수확시기 및 후숙조건

- 5~6월 수확하는 반촉성재배 수확시기 : 수분처리 후 45~50일(시설 반촉성)
- 후숙 조건 : 30℃, 5~10일간 예건시 기호도 및 품질 우수
 - 미니단호박 수확 초기중량의 4~5% 감량까지 예건하는 조건
- 온도별 예건기간 : 25℃에서는 15, 실온에서는 15, 35℃에서는 2일 소요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해남·함평지역 재배농가 기술지원 및 영농활용 자료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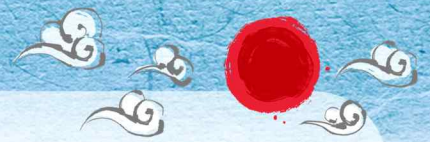
□ 기술개발 파급효과

○ 고품질 미니단호박 상품 출하로 고객만족 및 수요 증대 : 17% 이상

- 지역특화 작목으로 고품질 미니단호박 출하로 상품 이미지 제고
 - 미니단호박 평균소득액 7,500,000원, 상품 조기 출하 시 1,310,380원/10a 상승
- 미니단호박 상품 출하시기 조정 및 조기 출하로 소득증대 효과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 오봉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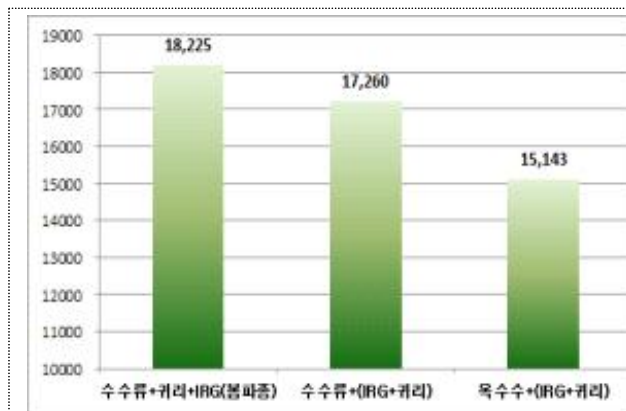




■ 전남지역 벼 대체 사료작물 연계 조사료 최대생산 작부체계

□ 개발기술 내용

- 작부체계 : 수수류 → (가을) 귀리 → (봄) IRG 파종·수확
- 파종·수확일 : 수수류(파종 : 5월 하순, 수확 : 8월 중순), 귀리(파종 : 8월 하순, 수확 : 11월말) + IRG(파종 : 2월 중순, 수확 : 5월 하순)
- 논에서 최대생산 작부조합은 수수류 수확 후 귀리를 파종·수확하고 이듬해 IRG를 파종 5월 하순 수확에서 TDN 수량은 연간 18,225kg/ha



【작부조합별 TDN 수량(kg/ha)】



【작부조합별 건물 수량(kg/ha)】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영농기술 지도 및 교육 활용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총가소화 영양(TDN) 증가 : 5.5~20.3%
- 건물수량 증수 : 6.5~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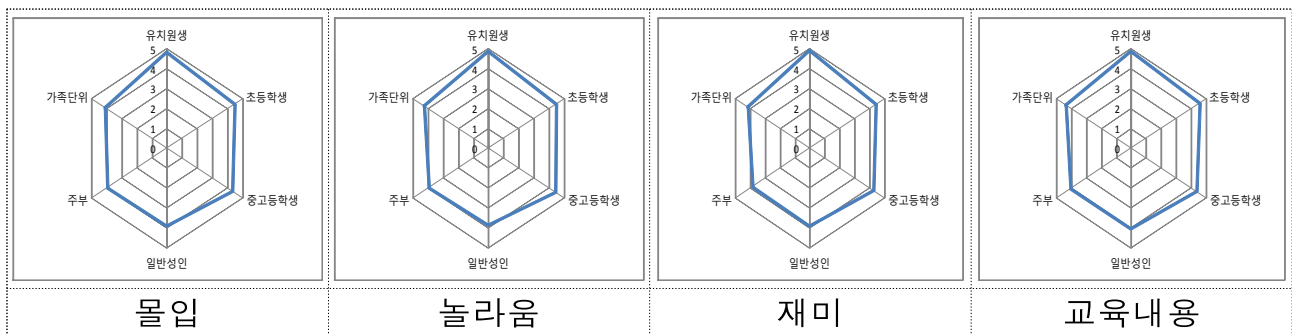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 김기수

■ 소금을 활용한 농가형 체험 프로그램

□ 개발기술 내용

○ 아열대채소 소금 체험 프로그램의 특징과 운영방법

- 특히 유치원생, 가족단위 선호도가 높으며 체험장소는 농촌교육농장과 소규모 가공농가 등이 적합
- 적정 운영시간은 1시간 내외, 체험상품 가격으로는 1만원이 적당
- 초등학교의 교과활동과 연계하여 방과후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



【대상별 소금체험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비교】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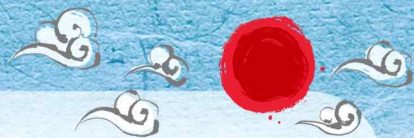
- 농촌교육농장, 소규모 가공농가의 체험상품으로 제시
- 아열대채소 소금의 농가형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소비자 반응자료 제공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아열대채소 재배농가 및 가공농가의 체험상품 개발 등 새로운 소득원 발굴로 소득 증대 및 농업의 6차산업화 실현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강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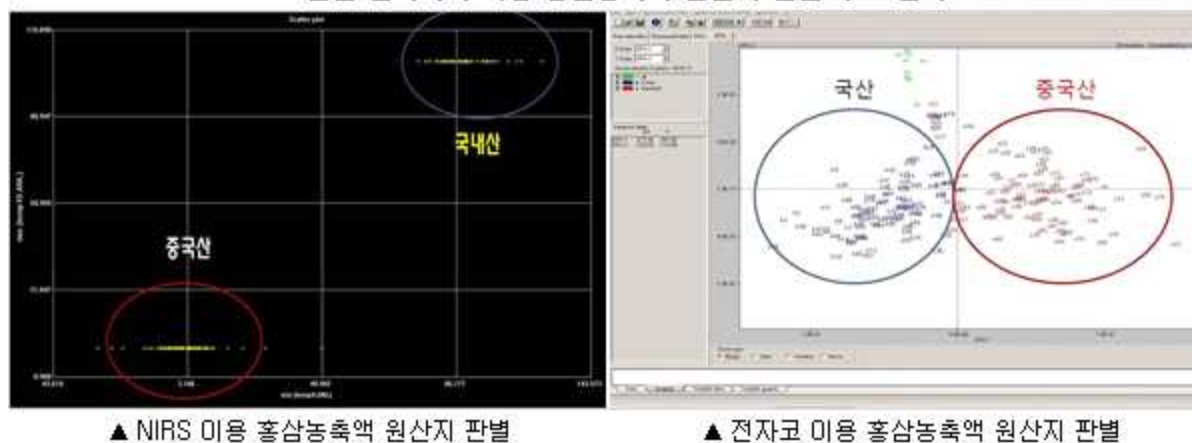


■ 홍삼농축액 원산지 가려낸다

- 첨단 판별기술로 적극 활용...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 -

- 최근 중국산 가짜 홍삼제품이 시중에 유통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홍삼농축액의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술로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 중국에서 수입된 인삼농축액은 한해 평균 47.5톤에 이르고 있으며, 수입 원료를 부당한 방법으로 국산 홍삼제품으로 둔갑시키는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원천기술의 개발과 실용화는 매우 중요하다.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은 정부3.0 가치 실현의 하나로 위조 홍삼농축액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2014년에 개발해 현재 활용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첨단 분석기기 이용 홍삼농축액 원산지 판별 주요 결과



-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DNA 마커를 개발해 고려인삼과 미국삼 등 종의 기원이 다른 홍삼농축액을 판별할 수 있다.

- 홍삼농축액을 만드는 과정에서 DNA가 많이 손상되기에 손상이 덜한 미토콘드리아의 일부분을 증폭할 수 있는 DNA 마커 개발이 핵심기술이다. DNA 분석은 5~6시간 정도 걸린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동일한 종이면서 원산지가 다른 국내산과 중국산의 홍삼농축액을 4종의 첨단 분석장비를 이용해 판별할 수 있다. 이 기술은 한국과 중국의 토양, 기후, 재배 및 가공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했다.
- 근적외선분광분석기와 전자코를 이용한 원산지 판별 정확도는 100%로 나타났다. 이러한 첨단 분석기기를 이용한 판별은 별도의 전처리 과정 없이 홍삼농축액 원액을 사용해 약 1시간 안에 분석 결과가 나온다.
- 홍삼농축액의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 인삼과(043-871-5613)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검정과(054-429-7861)로 문의하면 된다.
-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개발한 판별기술이 홍삼 제품의 원산지 속임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현장단속 기술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생활 속의 작은 난 화분, 실천해보세요

- 난 산업 활력 도움 기대... 24일 국산 심비디움.. 팔레놉시스 품종 평가회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생활 속의 화훼 소비촉진을 위해 소형 난 품종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심비디움 '원교 F1-62'

▲ 팔레놉시스 '원교 F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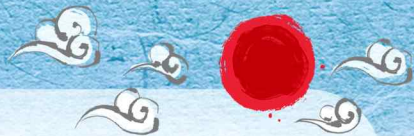
▲ 심비디움 '원교 F1-63'

- 그동안 개발된 심비디움은 주로 잎 길이가 70~80cm 되는 중형종이지만, 현재 주력 육성 중인 소형 심비디움은 50~60cm 정도의 크기다.
 - 소형 크기는 가정이나 사무실의 탁자 위에 간편하게 올려두고 실내 분위기를 화사하게 연출하기에 적합하다.
 - 특히, 심비디움 '원교 F1-62'는 소형에 아직 덜 미치지만, 꽃대 발생도 우수하고 옅은 핑크빛 색으로 실내를 환하게 밝혀주는 효과가 있다.
- 팔레놉시스 소형은 머그잔 크기의 화분에 담아 책상 위에 두고 감상하기에 좋다. 지난해 개발한 '핑크'는 소형 품종으로 한 개의 화분에 약 20송이 정도 꽃이 달리기 때문에 볼륨감이 돋보인다.

- 농촌진흥청은 24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 완주군)에서 그동안 개발한 다양한 소형 난 품종과 더불어 분화용 또는 절화용으로 활용 가능한 심비디움, 팔레놉시스 계통·품종을 소개하면서 평가하는 자리를 갖는다.
- 평가회는 ‘생활 속의 난’을 주제로 가정 및 실내에 들여놓을 수 있는 소형 난, 생활 속 절화 장식과 6차산업 관련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 이 자리에서는 지속된 수출 악화와 소비 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된 난 산업의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앞으로의 소비 패턴과 새로운 수출나라에 맞는 품종을 선정하기 위한 의견수렴의 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 평가회에는 국내 난 연구자, 심비디움·팔레놉시스 재배농가, 난 종묘증식업체, 화훼유통(수출) 전문가, 플로리스트, 그리고 소비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한다.
- 농촌진흥청 화훼과가 현재까지 육성한 난 품종은 심비디움 49, 팔레놉시스 26품종이다.
- 2016년의 국산 난 품종 보급률이 16.4%로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난 연구팀과 협력해 우량묘 공급을 위해 바이러스 진단, 순화묘 보급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면서 보급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화훼과 박부희 농업연구사는 “어려운 때일수록 꽃을 더욱 가까이 하여 마음의 위로를 받길 바라며, 소형 난 품종 육성과 더불어 보급을 통해 꽃 문화 확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블루베리, 갈색날개매미충 알 낳은 가지 처리는

- 2월까지 가지치기시 부화율 0%, 자른 가지 태우거나 묻지 않아도 돼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블루베리 가지에 갈색날개매미충 알이 붙어있는 경우 부화율이 낮으므로 잘라낸 가지를 태우거나 땅에 묻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 그동안 블루베리 재배농가에서는 갈색날개매미충(*Ricania shantungensis*) 발생밀도를 낮추기 위해 알이 붙어 있는 가지를 잘라 태우거나 땅에 묻는 등 노동력을 들여 별도의 작업을 해왔다.



▲ 갈색날개매미충



▲ 가지속의 알

- 농촌진흥청 원예특작환경과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월별로 잘라낸 가지에서의 갈색날개매미충 알의 부화율을 조사했다.
- 그 결과, 2월까지 가지치기를 할 경우 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3월과 4월에 가지치기한 가지에서는 부화율이 각각 1, 1.5%였다.
- 따라서 블루베리 가지치기를 2월까지 끝낼 경우 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므로 병에 걸리는 등 특별한 가지가 아닐 경우에는 잘라낸 가지를 잘게 부스러뜨려 과원 바닥에 깔아주는 것이 좋다.

- 또한 3월에 가지치기할 경우에도 부화율이 1%로 매우 낮고, 부화한 약충은 블루베리 과원에서 살지 않고 주변의 다른 기주식물로 이동하므로 잘라낸 가지를 태우거나 땅에 묻을 필요는 없다.
- 갈색날개매미충(*Ricania shantungensis*)은 2010년 8월에 충남 공주의 블루베리와 예산의 사과나무에서 처음 발견된 해충이다.
- 2014년까지는 주로 경기·충남·충북·전남·전북 등 서쪽지역에서 발생했으나 2015년에는 경북 등 43개 시·군에서 발생해 전국으로 확산됐다. 기주식물로는 62과 138종이 확인됐다.
- 감·복숭아·사과·매실·산수유·블루베리 등의 가지에 약충과 성충이 붙어 즙액을 빨아먹고 분비물을 배출해 그을음병을 일으키고, 1년생 가지 속에 알 덩어리를 형성해 산란함으로써 가지를 죽게 한다.
- 특히 기주범위가 넓기 때문에 농경지에 발생하는 개체를 잘 방제한다 해도 산림속의 타 기주식물에서 서식하고 있는 개체가 지속적으로 농경지로 날아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제가 어렵다. 때문에 과수원을 비롯한 각종 농작물에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해충으로 지목되고 있다.
- 농촌진흥청 원예특작환경과 김동환 농업연구관은 “블루베리에서 갈색날개매미충 산란가지를 잘라낸 뒤 태우거나 땅에 묻는 등의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에 따른 노동력을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8. 정책 동향

◆ 대만·일본 수출농산물 안전성 확보 나선다

- 사과·파프리카 등 20작물 농약안전사용지침서 발간·보급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대만·일본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 초과검출로 통관에 어려움을 겪었던 20작물에 대한 농약안전사용지침서를 발간·보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마련한 농약안전사용지침 대상작물은 대만 수출용 사과·배·딸기·배추 등 14작물과 일본 수출용 파프리카·고추·토마토·들깨잎 등 6작물이다.
- 지침서에는 각 수출작물에 대해 적용 병해충별로 사용 가능한 농약 목록과 함께 최종살포일, 살포횟수, 희석배수, 잔류허용기준 등을 상세히 수록하면서 수출농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한편, 최근 3년간 한국산 수출농산물의 대만·일본 통관과정 중 잔류농약 초과 검출로 통관이 금지된 사례는 총 92회로, 검사 강화 등으로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에 큰 걸림돌이 돼 왔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발간된 지침서를 수출 관련 기관, 단체 및 농가, 업체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미국·중국 등 11나라 30작물에 대한 맞춤형 농약안전사용지침서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는 한편, 안전성 컨설팅 등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해 우리농산물의 수출 확대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전남도, 1읍·면 1푸른들 시범지구 추진

- 자운영 등 지구당 10ha 규모... 종자대·파종비 전액 지원 -

- 전라남도는 겨울철 농지 이용률 제고와 지력 증진을 통한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신규로 '1읍·면 1푸른들 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올해 시범 추진하는 '1읍·면 1푸른들 지구 조성' 사업은 대단위 들녘, 도로변 등 가시적 효과가 큰 농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구당 10ha 이상 규모다. 특히 전남지역 농촌 229개 읍·면을 대상으로 지구당 10ha 이상의 푸른들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등 3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1만ha에 자운영 등을 재배키로 했다.
- 지원 대상은 겨울철 유휴 농경지에 자운영 등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이미 경관보전 직불제와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를 지원받은 농지는 제외된다.
- 지원 품목은 자색의 꽃으로 경관 효과가 뛰어난 '자운영'을 중심으로 농지 여건에 맞게 헤어리베치·녹비(청)보리·호밀도 가능하다. ha당 종자 지원 공급량은 자운영 40, 헤어리베치 60, 청보리 140kg 등이다.
- 또한 파종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부녀농가 등 취약 농가를 위해 지구별로 공동 파종단을 구성 운영해 파종작업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친환경농업의 지속적 실천기반 확충을 위해 녹비작물 종자대와 ha당 4만원의 파종비도 지원한다. 또 자운영 나물캐기, 종자 채취, 어린 학생들의 체험 학습장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도 일부 지원한다.
- 자운영 재배 등 사업 희망자는 오는 2월 28일까지 시·군,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 출처 : 전라남도





◆ 영세고령농 생산 농식품 판매 지원한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전남정보화농업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지역에서 영세하고 고령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식품의 판매와 홍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5년 통계에 의하면 전남의 65세 이상 농가인구는 146,482명으로 고령화율이 44.7%이고, 70세 이상이면서 0.5ha 이하를 경작하는 영세고령 농업인은 20.5%(30,813호)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의 초고령화 사회는 다른 지역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으며 농촌지역은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세·고령 농가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생산한 농식품의 판매와 일자리 창출 등이 농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전남 농기원에서는 근력부족 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고령 농업인들의 홍보와 판매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농식품의 홍보와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에는 농업기술원에서 마케팅 교육을 받고 지역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농업인 10여명이 지역 어르신 1,000여명이 생산한 농식품을 수집하여 판매를 대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하여 영세·고령 농업인들의 영농실태, 농산물 판매실태, 향후 영농의향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해 간다.
- 전남농기원 농업경영연구소 김덕현 박사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농산물 판매지원”을 위한 “판매개선 연구와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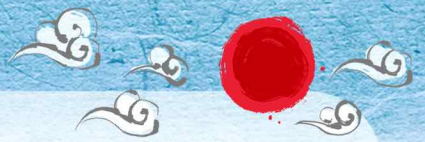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농업용 면세유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현, 이하 '농관원')은 농업용 면세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정유통·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농업용 면세유 불법행위에는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면세유나 면세유 구입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 △대상 농기계를 거짓으로 신고하여 면세유를 공급 받는 행위 △면세유 구입카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하는 행위 △농업인이 아닌 자에게 면세유 구입카드 등을 발급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 불법행위를 목격 또는 확인한 자는 1588-8112로 전화하여 관련 사실과 본인의 간단한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을 확인 후 신고할 수 있다.
- 농관원은 접수된 신고에 대해 현장조사와 지급심사 등을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위반금액에 따라 5~10만원 상당의 사례품을 지급한다.
- 위반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5만원 상당, 100만원 초과일 경우 10만원 상당의 사례품을 지급하고, 위반금액 10만원 미만은 농관원 홍보물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 위반행위자는 면세유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 사용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 농업용 면세유 불법행위 신고와 포상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부정유통 신고센터 1588-8112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9. 해외 농업정보

◆ 홍콩, 조류독감 이유로 한국산 가금류 일부 수입 중단

- 홍콩은 가금류 소비 비중이 높으며 연간 100억 홍콩달러가 넘는 규모의 가금류를 수입하고 있음. 2015년 기준 홍콩 가금류의 전체 수입액은 101억 5,200만 홍콩달러임. 미국·브라질·중국이 전체의 85%를 차지하며 미국산이 32억 6,400만, 브라질산이 29억 6,700만, 중국산이 24억 1,000만 홍콩달러를 기록함
- 우리나라의 대홍콩 가금류 수출규모는 2016년 1~10월 간 2,500만 홍콩달러를 기록함. 이는 2013년 기준 5,100만 홍콩달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14년 기준 300만 홍콩달러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임. 홍콩은 2016년 기준 약 10개월간 우리나라에서만 2,400톤의 냉동 가금육류와 176만 개의 계란을 수입함
- 홍콩의 대한민국 가금류 수입은 2014년 5월부터 전면 금지되어 2015년도 수입은 없었음. 홍콩은 연중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되고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사전 예방을 위해 수입금지 등 강경 조치를 취함
- 홍콩의 식품안전청(CFS)은 2014년 한국 내 AI 발생으로 인해 한국산 생닭과 계란 등의 가금류 수입을 전면 중단했으며, 2016년 3월 초에 수입을 재개함. 그러나 AI가 재발하자 경기도·충청남도,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가금류에 대해 단계적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림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따르면, 홍콩은 2015년 12월 '가금류 및 계란 수입 개정안'을 발효해 홍콩으로 가금류와 계란 수입 시 홍콩 식품안전청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을 명시함. 동 규정 위반 시 최대 5만달러의 벌금과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게 됨
- 홍콩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는 닭이나 계란 등의 신선 가금류의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수출판로가 이제 막 개척된 상황에서 향후 한국산 계란을 비롯한 가금류 수출은 하락세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됨
- 실제로 2016년 1~10월까지 한국 가금류가 전 세계로 수출하는 규모는 3,170만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3,807만달러였던 전년 동기 대비 약 17% 감소한 수치임
- 한편, 우리나라는 AI의 재발로 인해 2016년 3월에 2014년 이후 2년 만에 되찾은 AI 청정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음. AI 확진 판정이 나오면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의해 AI 청정국의 지위가 박탈될 뿐만 아니라, 해외 생육 수출 또한 중단됨. 이에 따라 우리나라 신선 가금류 업계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수출업체들 또한 국내·외 소비시장의 위축을 우려하고 있음
- 또한 AI와 같은 병원성 질병이 발병되면 해당 국가 원산의 관련 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현지 소비자들의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홍콩의 한국산 가금류 수입 재개 이후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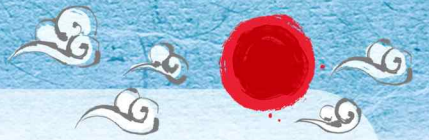
- 최근 삼계탕은 홍콩을 비롯한 중화권에서 웰빙음식으로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함. aT에 따르면, 2016년 10월 말까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삼계탕의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해 1,709톤을 기록함. 주요 수출국이었던 미국과 일본으로의 수출량은 각각 약 25, 6% 감소하였지만, 중화권과 동남아로 수출이 급증하던 추세였음. 홍콩의 많은 한국 식당들은 삼계탕을 주요 메뉴로 판매하며 현지인들의 인기를 끌었으며, 주요 슈퍼마켓에서 팩으로 포장된 삼계탕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음
- 우리나라 검역시스템 상 조류독감에 감염된 닭이 도축 및 가공될 수 없기 때문에, 삼계탕은 AI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음. 그러나 홍콩은 2003년 발발한 SARS 이후 유사한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으며, 홍콩의 지리적 특성상 강경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음
- 이번 AI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우리나라의 가금류 수출 하락세 또한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속한 사태 종료 이후 신뢰도 회복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정부와 관련업계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브라질, 건강·웰빙식품 트렌드

- 브라질에는 최근 건강·웰빙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오가닉(Organic), 베지테리언(Vegetarian)또는 비건(Vegan), 무설탕, 통곡물, 글루텐프리(Gluten Free)식품 등을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음
- Folha de São Paulo에 따르면, 브라질에는 건강·웰빙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베지테리언, 비건, 유기농식품이 주목받고 있음
- 브라질 음식은 육류를 기본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나 '채식=건강식'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고기 대신 채소류를 찾는 소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베지테리언' 소비자는 달걀이나 치즈 등의 유제품을 먹는 채식주의인 반면, '비건'은 동물성 식품은 전혀 섭취하지 않는 100% 채식주의자임
- 브라질 일부 식품업체들은 베지테리언, 비건 소비자를 겨냥해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 건강식품으로 콩류, 견과류 등을 주로 취급해온 Mãe Terra사의 경우, 유기농 과자와 스낵 등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음. Superbom사 또한 비건 소비자를 위한 치즈, 단백질 등을 출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 베지테리언이나 비건, 유기농식품은 동종의 일반제품보다 가격이 약 60% 이상 높기 때문에, 주로 고소득층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러한 소비자들은 소득이 다소 줄더라도 현재의 소비습관을 크게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어, 비교적 단단한 소비자층을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됨
- 베지테리언, 비건, 유기농식품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이 같은 가공식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유기농 제품의 경우, 식품뿐만 아니라 의류, 화장품 등으로도 유기농 제품이 확대되는 추세임
- 또한 최근 브라질에는 다이어트를 하거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제로(Zero)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음
- 설탕 제로(Sugar Zero) : 설탕 포함 정도에 따라, 제로(zero), 라이트(light) 등으로 구분되며 토마토소스·깍·과자·식빵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이 판매되고 있음. 특히 식빵의 경우, 무설탕 또는 설탕을 대폭 줄여 만든 반죽에 각종 견과류를 추가한 건강빵이 인기를 누리고 있음
- 유당 제로(Lactose Zero): 본래 '유당 제로'는 유당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개발된 제품임. 그러나 최근에는 '유당이 포함된 음식이 성인에게 해롭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유당 제로' 음식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음. 현재 브라질에는 우유·치즈·초콜릿·과자류·빵류 등 다양한 '유당 제로' 제품이 판매되고 있음
- 건강·웰빙을 추구하는 브라질 소비자들이 늘 관심을 보이는 키워드로 'Integral(Wholemeal)' 제품을 들 수 있음. 대표적인 예로, '통곡물'을 들 수 있으며 통밀 식빵·통곡물 시리얼 바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음

- 최근 브라질 소비자들 사이에서 글루텐프리 식품이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음. ‘글루텐프리’는 본래 글루텐 민감증 환자를 위해 개발됐으나, 최근에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오히려 더 주목받고 있음
- 글루텐이 없는 쌀로 만든 과자나 케이크, 면류 등이 유행하고 있으며, 특히 브라질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는 ‘카사바(감자의 일종)’가 글루텐프리 식품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카사바로 만든 각종 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음
- 한편, 브라질 소비자들은 ‘동양 음식=건강·웰빙’이라는 인식이 강해, 된장·녹차·해초 등으로 만든 식품을 건강식품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식품기업들은 브라질의 건강·웰빙 트렌드에 따른 소비자 니즈를 분석하여 이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개발을 통해 브라질 진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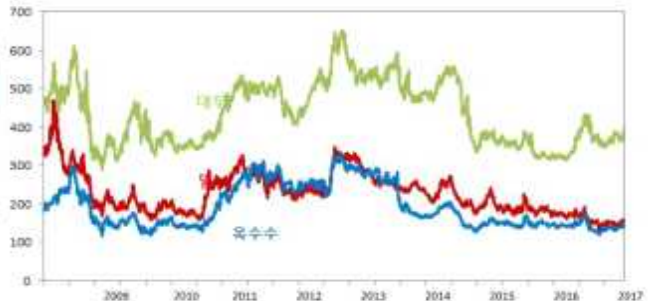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7. 1. 27.(시카고 선물거래소)

남미 기상 여건 개선 및 미국의 교역 관계에 대한 불안감으로 옥수수 대두 선물 가격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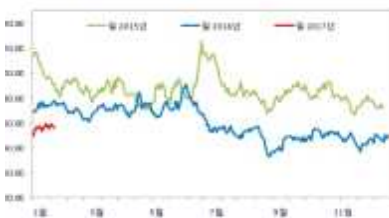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7.1.26)	전일대비	전월평균 (16.12)	2016 평균
밀	156.89	▲0.6%	146	160
옥수수	143.14	▼0.7%	138	141
대두	385.58	▼0.5%	375	363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단위(밀, 옥수수, 대두: 3월분) 계산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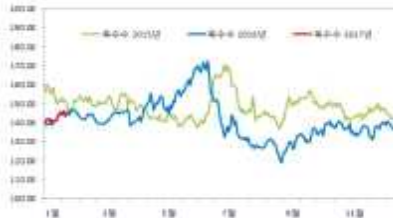


밀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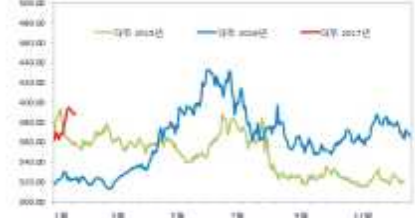
시카고 선물 거래소 밀 선물 가격은 기대보다 높은 수출 판매 실적으로 전일 대비 상승 마감하였음. 옥수수와 대두의 하락세에 동조하지 않으며 밀 선물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음. 수출 기대치였던 200,000~400,000톤을 훨씬 웃도는 수준인 853,400톤을 수출하였음. 밀 선물 가격은 부셸 당 2.5센트 상승한 \$4.27로 마감하였음.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남미 기상 여건 개선과 미국의 교역 관계에 대한 불안감으로 전일 대비 하락 마감하였음. 옥수수 가격은 박스권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최대 옥수수 수입국인 멕시코로의 수출에 대한 우려는 가격 하락을 제한하였음.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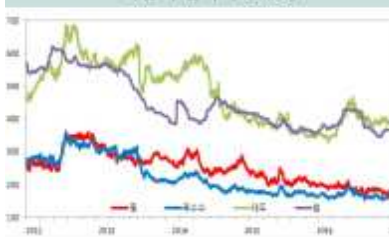


시카고 선물 거래소 대두 선물 가격 또한 남미의 기상 개선 및 미국의 교역 관계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전일 대비 하락 마감하였음. 대두 가격은 지난 주 아르헨티나 대두 생산지역의 홍수 피해로 인해 6개월 이래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이후 이번 주 들어 건조기후가 지속되면서 조금씩 다시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대두유 선물 가격은 트럼프 정부의 바이오연료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최근 두 달이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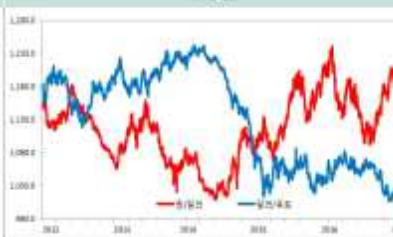
관련동향

- 옥수수 수출 프리미엄은 새로운 개발 소식 등으로 인해 강보합세 마감.
- 26일 국제유가는 미국 경기 호조 및 산유국 감소 이행 기대감 등으로 상승하였고, 미 원유 재고 증가 여파, 미 달러화 강세 등은 상승폭을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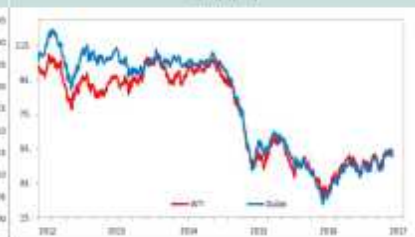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곡물수출가격 (FOB)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환율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밀	185	▼0.5%		원/달러	1,166.2	▲0.2%
	옥수수	171	▲0.6%		달러/유로	1.0749	▲0.2%
	대두	406	▼0.2%		WTI	53.78	▲2.0%
	쌀	368	-		Dubai	53.86	▲0.7%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3월분), Dubai(현물)

※2) 기준일은 '17.01.24(수출가격), '17.01.25(환율), '17.01.25(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Daily World Grain Report

E-mail : wonjeong@krei.re.kr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10.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전남농기원, 수출용 양란(심비디움) 설 선물 직거래 행사 성료

- 수출용 양란(심비디움) 설 선물 직거래 행사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설을 맞이하여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에 도움을 주고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해 '수출용 양란(심비디움) 직거래 행사'를 가졌다.
-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꽃 소비금액은 1만 4천원 수준이며, 꽃 소비가 많은 노르웨이(16만원), 네덜란드(11만원), 일본(10만원)에 비하면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치이다. 이마저도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85% 이상이 경조사용이나 선물용으로 차지하고 있는 화훼소비구조가 청탁금지법 이후 꽃 소비를 더욱 위축 시키고 있다.
- 이번 직거래 행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고 생활 속에서 꽃을 즐길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설을 맞아 화훼 소비를 활성화 하고자 기획했다.
- 심비디움은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꽃으로 우아하고 화사하며 꽃말은 귀부인, 미인으로 불리며 중국에서는 새해 복을 드리고, 부를 상징한다 하여 최고의 춘절 선물로 꼽히고 있다.
- 이번 행사는 농업기술원을 비롯하여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한전KDN 임직원, 도시농업연구회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신청하세요

- 생산·가공·유통·판로 확보 위해 70억원 1% 저리 융자 -

-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인 등이 친환경농업 실천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2017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70억원을 1%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신청 자격은 전남 거주 1년 이상 친환경농업인, 생산자단체(친환경 법인) 또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등 전남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에 기여한 단체다.
- 친환경농업 육성기금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나눠 지원되며 개인은 1억, 단체는 5억, 유통업체 임차료는 10억원까지 지원된다.
- 시설자금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활성화 및 친환경농자재 생산을 위해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에 보유한 시설을 확충할 경우 지원된다.
- 운영자금은 시설자금 이외의 원료 구입, 구매자금, 친환경농자재 생산자금, 포장디자인 개발 비용, 판매장 임차료 등과 같이 소득증대에 소요되는 사업에 지원된다.
- 상환 조건은 운영자금의 경우 2년 거치 일시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활용을 희망하는 농업인(단체)은 오는 2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 전라남도는 서류(현지)심사,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께 사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 출처 : 전라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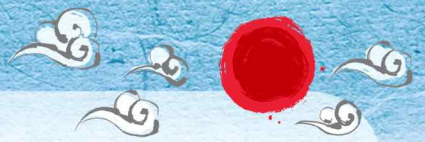
◆ 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

- 「커피박 퇴비 제조 및 활용 매뉴얼」 발간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커피찌꺼기를 이용한 커피박 퇴비의 효율적인 제조방법과 작물별 적용기술 등의 내용을 담은 ‘커피박을 이용한 퇴비 제조 및 활용 매뉴얼’을 발간했다.
- 이 책은 커피박 개요, 커피박 퇴비 만들기, 커피박 퇴비의 특성, 생활 속의 커피박 활용 방법, 참고문헌 등 총 5장으로 구성돼 있다.
- 1장에서는 커피박에 유기물·섬유소·리그닌·폴리페놀화합물 등이 다량 들어 있어 재활용 가치가 높은 유기성 자원임을 설명하고 있다.
- 2장에서는 커피박을 주재료로 하고 한약재 찌꺼기 등 5종의 농산 부산물을 부재료로 해 간편하게 커피박 퇴비를 제조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 3장에서는 커피박 퇴비가 토양의 물리성·이화학성·생물상 등을 바꿔주면서 역병, 시들음병 등 주요 식물병원균에 우수한 항균력을 갖고 있는 등 커피박 퇴비의 특성에 대해 설명했다.
- 이 책을 통해 버려지는 커피찌꺼기를 유기질 퇴비로 만들어 활용함으로써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발간한 책은 각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비자단체 등에 배부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lib.rda.go.kr)에서 검색하면 PDF로 볼 수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갈색양송이 온라인 평가하고 버섯 선물 받으세요

- 1월 23일~2월 10일까지 설문... 응답자 200명 버섯 제공해 맛 평가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소비자에게 갈색양송이 ‘호감’ 품종을 알리기 위해 1월 23일부터 2월 10일까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 (www.nihhs.go.kr)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정부3.0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설문조사는 골든씨드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의 새 품종 보급 촉진의 하나로, 갈색양송이의 소비 활성화를 통해 국산품종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 진행한다.
- 갈색양송이 대는 흰색이지만 갓은 갈색이다. 서양에서는 갈색 양송이가 백색양송이보다 향과 맛이 풍부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며 ‘크레미니’ 버섯으로 부르고 있다.
- 설문조사 방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에서 갈색양송이 ‘호감’ 품종의 동영상을 보고 사전 인식 및 호감도 문항에 응답하면 된다.
- 설문 응답자 중 200명을 추첨해 갈색양송이 ‘호감’ 품종 500g 정도를 선물로 보내준다. 갈색양송이를 받을 설문 응답자는 2월 15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선정된 200명은 상품으로 받은 ‘호감’ 품종을 직접 맛 본 다음 동봉된 식미 평가지를 작성해 메일(o5ne2@korea.kr)로 보내면 된다. 참여자 중 최종 5명을 선정해 소정의 버섯 세트를 추가 증정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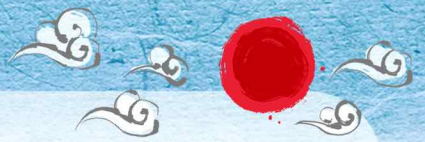
- 온라인 설문과 이메일을 통해 받은 외관 및 식미에 대한 후기는 자료 분석 뒤 앞으로 품종개발 방향 설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 이번에 평가받을 주인공인 갈색양송이 ‘호감’ 품종은 ‘감’색을 띠는 버섯이 ‘좋다(好)’는 의미의 이름으로 농촌진흥청 버섯과에서 2014년 육성했다.
- ‘호감’ 품종은 일반 갈색양송이보다 더 밝은 갓 색으로 시장 선호도가 높다. 또한 버섯 갓과 대가 두꺼워 형태적으로 우수하고, 농가실증 결과 2~3차 수확에도 버섯 생산량이 많다는 평가를 받았다.
- 농촌진흥청 버섯과 오연이 농업연구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소비자들이 갈색양송이를 많이 찾게 되면서 농가재배도 확대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갈색양송이 품종 ‘호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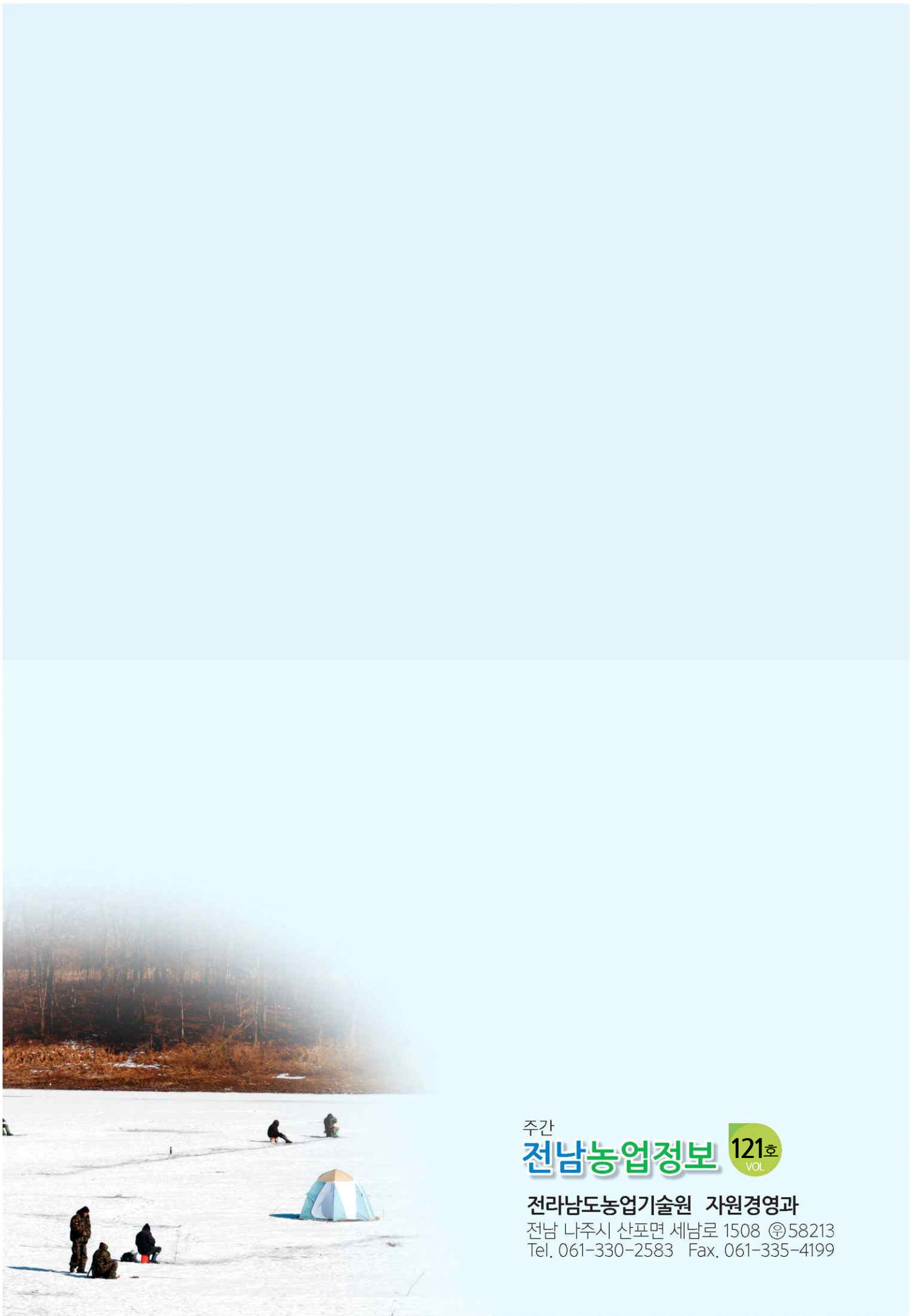
◆ 봄의 시작, 24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 입춘 (立春)

- 입춘(立春)은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로서 대한(大寒)과 우수(雨水) 사이에 있으며, 보통 양력 2월 4일이나 5일에 해당한다. 음력으로는 정월의 절기로서 보통 새해를 상징하며 이날부터 봄이 시작된다.
- 입춘이 되면 각 가정에서는 기복적인 행사로 입춘축(立春祝)을 대문이나 문설주에 붙였고, 입춘축은 입춘시에 맞춰 붙여야 효력이 있다고 전래되며, 2017년(정유년) 2월 4일(음력 1월 8일) 00시 34분을 기하여 아파트의 경우 현관문 바깥쪽이나 거실벽에 붙이면 된다.
- 입춘축으로 입춘대길 건양다경 (立春大吉 建陽多慶)이 가장 많이 쓰이는 문구이며,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 새해의 첫째 절기로서 농경의례와 관련된 행사가 많으며, 함경도에서는 입춘날 나무로 만든 소를 관청으로부터 민가의 마을까지 끌고 나와 돌아다니는 의례를 갖는데, 이는 흙으로 소를 만들어 겨울의 추운 기운을 내보내는 중국의 옛 제도를 모방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뜻에서 행하였다. 제주도에서는 입춘날 굿놀이를 행하는데, 이 놀이는 농경의례에 속한다.
- 전남 구례군 마산면 마산리에서는 입춘 때 보리뿌리를 뽑아 살장 뒤에 놓아두면 보리뿌리가 자라는데, 보리뿌리가 많이 나면 길하고 적게 나면 그해 보리가 안 된다고 하고, 무안에서는 “입춘날 눈이 오면 그해 머루가 쓰인다”고 하여, 그해 여름 벼농사에 머루(자방충)가 많이 생겨 해농(害農)한다 하고, 제주도에서는 입춘날 바람이 불면 그해 내내 바람이 많고 밭농사도 나쁘다고 한다.

- 대한을 지나 입춘 무렵에 큰 추위가 있으면, “입춘 추위에 김칫독 얼어 터진다”라 하고, 입춘이 지난 뒤에 날씨가 몹시 추워졌을 때에는 “입춘을 거꾸로 붙였나”라고 말한다. 입춘 무렵에 추위가 반드시 있다는 뜻으로 “입춘 추위는 꺾다 해도 한다”는 말이 생겼다.
- 입춘절식이라 하여 궁중에서는 오신반(다섯 가지의 자극성이 있는 나물로 만든 음식)을 장만하여 수라상에 올렸다. 오신반(오신채)은 겨자와 함께 무치는 생채요리로 엄동(嚴冬)을 지내는 동안 결핍되었던 신선한 채소의 맛을 보게 한 것이다. 또 이것을 본떠 민간에서는 입춘날 눈 밑에 돋아난 햇나물을 뜯어다가 무쳐서 입춘 절식으로 먹는 풍속이 생겨났으며, 파·겨자·당귀의 어린 싹으로 입춘채(立春菜)를 만들어 이웃 간에 나눠먹는 풍속도 있었다. 함경도에서는 민간에서 명태순대를 만들어 먹는다.

* 출처 : 네이버지식정보





주간

전남농업정보

121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